

“일본판 세계문학전집에 한국작품 수록”

우리문학 일본소개 애쓰는 교포작가 안우식씨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국내에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재일교포 번역가 안우식씨(58, 一橋大강사)는 일본의 출판·잡지·문학계에서는 한국문학 번역가로 상당한 명망을 얻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최근 반가운 소식을 안고 고국을 방문했다.

일본 集英社가 펴낸 「세계문학전집」에 우리문학 작품이 수록되었다는 것이 그것. 전집이 발간된 것이 지난 6월이니 소식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외국에서 발간되는 세계문학전집 속에 우리문학이 자리를 차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반가움과 의의는 더욱 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고전문학,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동구,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라틴아메리카, 중국, 아프리카, 조선 등의 문학작품을 전 20권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는 이 전집 가운데 우리 것은 중국, 아프리카문학과 함께 제20권의 첫 부분에 실려있다. 수록된 작품은 이효석 「장미 병들다」 김동리 「明文」 최서해 「탈출기」 현진건 「火」 나도향 「水車」 유진오 「김강사와 T교수」 등 7편. 「朝鮮短篇集」이라고 붙여 놓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 수록된 작품들은 거개가 식민시대에 발표된 것들인데 작품선정에서부터 번역, 작가해설과 부록으로 수록된 「조선문학사연표」(1900~1940) 작성까지를 도맡아 해낸 안우식씨는 작품선정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한국문학사에서 이미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그 수준을 공인받은 작품이라는 점과 이 작품들이 지니는 성격이나 분위기가 일본독자들에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리라는 판단에서였습



니다.”

그의 판단이 적중했던 것인지 독자들의 반응은 예상밖으로 커서 20권짜리 전집 중 마지막 권만 1만부가 팔려나가는 ‘기현상’을 낳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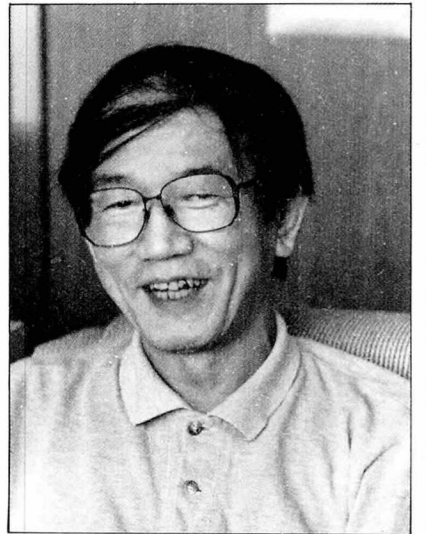
“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 한국문학작품들이 조금씩 소개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제법 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실적 긴장과 문학적 긴장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을 때 한국문학은 느슨해진 일본문학에 일종의 충격을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문학 작품이 세계문학전집에 수록되었다는 것은 세계문학의 대열에 우리문학의 호적을 등재했다는 의의 외에도, 일본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한국문학에의 관심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진 조차 놀라게 만든 이번 전집에의 반응 이후로 실제로 한국문학 작품 번역의 기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출판사도 적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독자의 관심을 외국작품에 붙들어매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번역의 힘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일본내에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데 바쳐진 그의 공로는 대단히 크다. 그가 번역한 우리문학 작품은 이번 전집에 수록된 작품을 빼고도 50여편에 이르는데, 한국문학에 대한 소개가 전무하던 1950년대에 번역한 추식의 「인간재배」를 필두로 하여 오는 10월 7일자 「新潮」지에 게재 예정인 장정일의 「아담이 눈 뜰 때」까지 다양하다.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감지되는 ‘좋은 작품’에의 느낌, 한국적 특색을 지니되 현대 일본독자들의 감각에도 맞는 보편적 요소를 지닐 것, 원작자의 의도에 충실할 것 등이 작품을 고르고 번역할 때의 원칙이라고 밝히는 그의 번역문장은 “한국인의 정조를 온전히 담아내되 완벽한 일본어로 옮긴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윤홍길의 「에미」의 번역으로 ‘일본번역문학상’을 수상한 그의 경력은 그의 번역문장의 탁월함을 공인해주는 것이다.

1932년 동경출생인 안우식씨는 와세다대 노문과를 중퇴했으며 조종련계 대학인 조선대에서 조선문학사를 강의하다가 60년대 후반 조종련과 결별했다. 형님과 동생이 각각 서울과 북한에 살고 있고 해방 이후에야 비로소 ‘외국어’로 우리 말과 글을 배웠다. 거칠게 살핀 그의 삶의 이력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지는 우리민족이 겪는 비극의 흔적은 그가 지닌 우리문



학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작품을 고르는 안목, 남다른 언어감각 등과 함께 그를 탁월한 번역가로 만드는 바탕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고국의 소식이나 문학계의 동향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생활하며, 1년에 두어번은 작품을 찾아, 변화의 분위기를 호호하기 위해 고국을 찾겠다는 그는 내년 봄쯤에 임철우씨 등 신예 작가들의 단편들을 번역해서 묶어 낼 계획이다.

—박남정 기자

편집·디자인 실무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제 1권
편집실무와 전자출판
저자/김두식
크라운판 403페이지



제 2권
편집디자인 실무분석
저자/김두식
크라운판 373페이지

- 특징**
- 1 원전 실무 위주의 집중분석.
 - 2 원고지 사용 요령부터 제본화인 요령까지 완벽한 실무 해설.
 - 3 풍부한 사진과 부분 원색인쇄로 읽고 보는 즉시 이해 가능.
 - 4 전자서식기, 전산편집기(DTP)의 기능과 특성을 기술명료 분석.
 - 5 어깨너머 배운 편집·디자인 실무를 완전히 체계 잡을 수 있도록 구성.
 - 6 초보자는 물론 경력자도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지침서.
 - 7 보다 아름다운 책을 만들기 위한 편집디자인 실무를 완벽히 분석.

지금 유명 서점과 디자인용품 판매소에서 시판 중!

3, 4, 6, 12개월에 걸친 편집·디자인 실무교육 교재로 활용 가능토록 구성하였습니다.

도서출판 **타래** 서울·마포구 상수동 271 우성 BD 201호
전화 325-1945 · FAX 337-5239